

38

佛國寺古今創記

문화재청자료실



EM005930

文化公報部



佛國寺古今創記



文化公報部

慶尙道江左大都護府 慶州東嶺 吐含山 大華嚴宗 仏国寺의 古今歷代
諸賢의 繼創記(創建・拡充・修理・再建의 歴史)

梁나라 大通2年(528)戊申年 즉 ①新羅法興王27년에 처음으로
創建되다。

法興大王의 어머니 迎帝夫人과 妃 己尹夫人은 出家를 해서 比丘尼가 되었다。 迎帝夫人은 그 法名을 法流라고 했는데 律令을
잘 지키고 實踐하였으므로 그가 創建한 華嚴仏国寺는 또 華嚴法流
寺라고도 불려졌다。

新羅의 ②味鄒王20年癸未에 高句麗의 僧 阿度が 中國에 건너가
서 ③玄暢和尚에게서 法을 배워가지고 온 以來 創建되었다가 廢해
진 伽藍에는 興輪・永興・皇龍・芬皇・靈妙・四天王・曇嚴등 일곱곳이
있었다。 이는 모두 이 仏国寺에 앞서 세워졌던 仏伽藍의 옛터들
이며, 法水가 流布되던 곳이다。 그 전통을 이어 仏法을 이 時代
에 널리 퍼기 위해 迎帝夫人은 直接 仏国寺를 創建하신 것이다。
(鷗林本記에 나온다)

또 阿度沙門의 本記에 관해서는 羅史僧錄가운데에 자세히 실려
있다。

陳의 宣布 때 大建6年 甲午(574年) 新羅의 ④真興王36년에 重
興하다。

真興王의 어머니는 只召夫人이었는데 夫人은 절을 새로 짓고 승

① 梁大通2年은 法興王27年이 아니라 法興王15년에 해당된다

② 味鄒王20年은 2年의 잘못이다

③ 玄暢은 玄彰이라고도 쓴다。

④ 真興王35年の 잘못

려들을 得度케하였다. 또 그는 皇龍寺의 銅像 丈六仏 5万7千5斤짜리를 鑄造케 했다. 鍍金비용이 102兩이었다. 그리고 夫人은 자진하여 剃髮하고 比丘尼가 되어 法雲子라고 불렀다. 夫人은 晋나라로부터 韋難陀라는 스님을 오게하였으며, 興輪寺의 기와를 다시 입혔으며, 또 昆盧遮那仏과 阿彌陀仏의 二壇을 鑄造케 하여 仏國寺에 奉安하도록 했다. (東國高僧傳에 나옴)

唐의 高宗 咸亨元年 庚午(670年) 新羅文武王 10년에는 無說殿을 새로 짓고 華嚴經을 講하였다.

文武王은 經論을 講하는 것을 鑄銅과 그 弟子 悟真·表訓等 十大德에게 맡겼으므로 서로 講論을 興하게 하였다.

한편 表訓에게 따로 분부하여 仏國寺에 住하도록 했다. 表訓은 항상 天宮을 往來하였다. (崔侯本傳과 曉師行狀에 나온다)

唐의 明皇(玄宗) 天寶 10年(751年) 辛卯 新羅 景德王 10年에 重創하다.

⑤ 新羅 孝成王(737~741) 시대에 漸開라는 이름의 居士가 있었는데 그는 六福會를 佛國寺에 베풀고자 하여 福安의 집에 와서 시주하기를 勸하니 安이 베풀 50疋을 주었다. 開가 祝願하기를 檀越(信士)이 布施하기를 쌓아하시니 天神이 항상 護持하여 一을 布施하면 萬倍를 얻게하고 安樂長壽하게 하리로다 하였다. 大城

- ⑤ 이 부분의 內容은 끝부분을 제외하고는 三國遺事가 古鄕傳에 記載된 것이라 고 하는 內容과 거의 同一하다
遺事에는 또 寺中에 記錄이 있어 景德王代에 大城이 天寶 10年辛未에 佛國寺를 짓기 시작하여 途中에 大曆 9年甲寅 12月 2日에 죽어서 國家에서 이를 完成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 책에 그러한 內容이 있어 적어도 이 부분만은 그 오래된 「寺中의 記錄」 그대로가 아닌가 한다

이 듣고 뛰어 들어와 그 母에게 「내가 문에서 중이 외는 말을 들으니 一을 布施하면 万倍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우리가 집도 좋은 것이 없고 이와 같이 困窮하니 지금 布施치 않으면 來世에는 더욱 艱難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팔이해 얻은 밭을 法會에 시주하여 後日 果報를 圖謀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매 母가 좋다하여 (얻은) 밭을 漸開에게 布施하였다. 얼마 아니하여 大城이 죽었다.

이날 밤 匡相 金文亮의 집에 하늘에서 부르짖음이 있어 가로되 牟梁里 大城兒가 이제 너의 집에 還生할 것이라 하였다. 家人이 모두 놀라 牟梁里를 가 보니 大城이 과연 죽은지라, 그날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꼭 쥐고 퍼지 않다가 7日만에 났다. (크 손안에) 大城이란 두 글자를 새긴 金簡子가 있어 또 이 (大城이란 이름)로써 이름하였고 그 어머니를 모셔다 아꼈다.

長成하여 사냥을 좋아하였는데 하루는 吐含山에 올라가서 곰을 잡고 山麓 村에 유숙하였다.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하여 시비를 해 말하기를 네가 어찌서 나를 죽였느냐 내가 還生하여 너를 잡아 먹으리라 하였다. 大城이 두려워하여 용서하기를 청하였다. 귀신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仏寺를 세워주겠는가 하였다. 大城이 맹세하여 그렇게 하겠다하고 꿈을 깨니 땀이 흘러 자리를 적시었다. 그 후로는 들에 나가 사냥하는 일을 금하고 그 곰을 잡던 그 장소에다 절을 세우고 熊壽寺 또는 長壽寺라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되는 바 있어 悲願이 더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살아 계신 두 부모를 위하여 仏匡寺를 改修하고 塔과

다리들을 만들었다。 한편 前生의 부모를 위해서는 石仙寺를 새로 짓고 神琳과 表訓의 두 聖師를 모셔다 각각 그곳에 머무르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부모의) 像을 만들어 모시고 그를 길러준 은덕에 보답하니 한 몸으로써 二世의 父母에 효도를 한 예로써는 옛적에도 드문 일이다。 善施의 영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랴, 그 후 石仙을 조각하여 한 큰 돌을 다듬어 龕蓋를 만들려 하는데 돌이 갑자기 세 토막으로 조각이 났다。 城이 몹시 아슬워하다가 잠시 잠이 든 어느날 밤에 天神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 大城이 일어나 급히 南쪽 嶺에 뛰어 올라가 香木을 태우고 天神을 供養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香嶺이라고 한다。 장차 五百千聖寶殿을 지으려 하였으나 불행히도 惠恭王大曆 9年甲寅(774年) 12月2일에 大城은 세상을 떠났다。 나라에서 마침내 이 일을 마치고 瑜伽大德(이름은 大賢 自号 背丘妙門, 景德王이 國師로 封하였다)을 請하여 ⑤마구니를 쫓아내고 이 절에 계속하여 머무르시게 하였다。 그 仙國寺의 雲梯와 寶塔, 그 木石에 조각한 技巧는 東都의 여러 寺刹中에서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당시의 주요한 건물과 그 크기는 다음과 같았다。

- 大雄殿 25間, 階의 높이는 四隅를 除外하고 8尺4寸, 둘레(圍) 88把, 各面에 층계(梯) 8步를 두다
- 東翼廡 3間

⑤ 李丙叢氏는 그 三國遺事國訖에서 「降魔」를 大賢의 法名처럼 이해했으나 같은 遺事中 「賢瑜伽海華嚴」이란 大賢傳에는 그러한 言及이 전혀 없으므로 여기서는 「降魔」를 이름으로 보지 않았다

西翼廡 3間

更多宝塔 四面의 欄楯이 莊嚴

西釈迦塔 1名 無影塔, 俗伝에 의하면 創寺때 匠工이 唐나라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한 누이동생이 있어 阿斯女라고 했다. 그 匠工을 찾아 왔으나 大功이 아직 完了되지 않아 안되니 이튿날아침 西方十里쯤 된 곳에가면 天然의 못이 있을터이니 그 못에 가보면 탑그림자가 비칠것이다 했다. 그녀는 이 말을 따라 거기에 가보니 탑의 그림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탑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八方金剛座台

光明台 一座

露 柱 一座

奉 炉 台 一座

東長廊 20 間

西長廊 20 間

左經樓 3 間

右經樓 3 間

이것들은 각 石柱로써 雕造했는데 芙蓉을 세워쳐든 듯 또는 虛空에 調和를 지은 것이라 百仞의 高樓가 마치 날개와 같았다. 須彌梵鐘閣 3間 역시 石彫인데 須彌山모양의 八角頂上에 樓를 지으면 그 위에는 108名이 앉을 수 있고 아래로는 五丈竿을 세울만 하였다。

升天橋 1區

南行廊 10 間

紫霞門 6 間

靑雲橋

白雲橋

◎極樂殿 12 間

東長廊 18 間

西長廊 18 間

前後行廊 26 間

光明台 1 座

華嚴台 1 座

安養門 6 間

七寶橋

蓮華橋

九品蓮池

毘盧殿 18 間

光學浮圖 1 座 或은 八祖師라고 하나 아직 누구인지 不明

華嚴台 1 座

◎觀音殿 6 間 安置한 聖像은 版藏記에 의하면 梁 龍德二年丙子, 景明王妃가 梁支工에 命하여 栴檀香木으로 聖相을 雕造하였다. 淨財를 喜捨하여 落成한 것임.
그 靈感은 衆生寺의 眞像과 다를 바가 없다.

東行廊 5 間

西行廊 5 間

光明台 1 座

南行廊 10 間

海岸門 1 間

洛迦橋

翠竹樓

綠陽閣

北에 無設殿 32 間이 있었다。

地藏殿 12 間

奉祭台 1 双

東西廊廡 各 5 間

南明鏡堂 5 間

杖錫樓 5 間

鉄蓮門 3 間

六途門 3 間

六道橋 天・人・餓鬼・阿修羅・畜生・地獄의 六橋各區

十王殿 4・5 間

東 堂 4 間

西 堂 4 間

南 樓 4 間

不二門 6 間

天王門 6 間

一柱門 3 間

十六應真殿 4・5 間

文殊殿 5 間, 安設 한 昆盧石像과 左右의 文殊・普賢座台와 衆王獅子 2 具는 野火로 인하여 燬落되었다。

누구가 만든 것인지는 알수가 없다。

光學藏講室 21 間 釈迦繡像一禪과 左壁에는 憲康大王의 面相이

있는데 이것은 景文王代의 髹画尼, 円海의 筆이다。

円海는 北寺定公主의 딸이다. 그림 수로 世上의 第一이라고 알려졌다。

東別室 5 間

西別室 5 間

祝聖樓 7 間

光明台 一座

正路門 3 間

沐 室 3 間

觀 庫 10 間

凝香閣 3 間

金剛門 6 間

五百聖衆殿 32 間

東西長廊 各 10 間

趣靜門 3 間

香炉殿 5 間

千仏殿 25 間 古伝에 말하기를 景德王때의 祝良은 神妙無比
했으며 또한 筆札(붓으로 그리는 일)을 잘하여 靈廟
寺의 丈六三尊・三天王像・殿塔의 기와와 天王寺塔 밑의
八部神將과 法林寺의 主仏三尊과 仏國寺의 一千聖相・左
右金剛神等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一路門 3 間

看星閣 3 間

山呼樓 7 間

華藏樓

無碍樓

円融樓

十玄門 5 間

万歲樓 22 間

壬子同說神室

尋劍堂

東別室

西別室

清風寮

明月寮

左右養老堂

內客室

外客室

迎賓寮

送客室

東西清室

省行堂 5間 等 48房이 있으나 번거로우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長壽寺 熊壽寺 兩壽寺에는 각각 聖像이 奉安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할바 없는 極致이다。 授訓・神珠浮國蓮池와 金河, 玉泉 石槽 五重과 刹竿이 있다。(三國僧錄遺事와 鄉伝에 나온다)

山脈의 鼻祖는 白頭山인데 蜿蜒이 내려와 州南의 彌述嶺에 이르러 다시 東쪽으로 돌아 聖祖山에서 멈춘다。(한 갈래는 南쪽으로 가 鳳栖山이 되고 다른 한 갈래는 北쪽으로 와서 吐含山이 되어 높이 솟아 庚方(西南)으로부터 西方으로 들어가 앉고 卯方을 向하니 이것이 石仙寺다。 甲卯方에서 壬方으로 떨어져 丙方을 向해 앉은 것이 仙國寺다。 그 地形을 보건대 旗발을 느리운 形態인데 이는 護軍形이라 생각된다。 仙國寺에서 三모쯤 떨어진 곳에 두 村落이 있는데 左村坊을 進峴이라고 한다。 즉 龍이 前進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그 둘 중간에 큰 돌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모양은 꼭 북과 같다. 깃발과 북으로 前進하는 모양이 표시되어 있다.

右村坊을 退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호랑이가 退却한다는 뜻이다. 들판에 한 高塔을 세우니 그 모양이 旗竿과 같고 退屯鎭兵의 모습을 표시하는 것 같다.

이 山은 또 七宝東山이라고 하는데 山중에 金・銀・琉璃・瑪瑙・瑠璃・玻・眞珠 등이 많기 때문이다. 일곱군데에 다 窟子를 짓고 七宝의 이름을 붙였다. 또 山밑에는 夢成寺가 있는데 이것도 大城이 처음 세운 것이다. 이 절은 仙國寺의 北쪽 塔洞에 있다)

大雄設에 鑿된 塑像은 釈迦主尊과 左右에 彌勒・竭羅・迦葉・阿難 도함 五尊의 像이 있다. 順政記에 의하면 開耀元年辛巳(681年) 4월 8일에 落成되었다고 한다. (神文王이 先王의 命으로 이것을 彫塑하도록 했고 表訓으로하여금 常任하면서 禮贊하도록 했다 한다)

唐의 睿宗 光啓元年 丁未(887年) 新羅 眞聖王元년에 重創하다

⑦ 眞聖女王은 即位初년에 諸伯의 后들과 더불어 獻康・完康의 두 大王과 先考 및 亡兄의 尊靈을 받들어 섬기기로 發心하고 仙臺寺에 穀物을 布施하고 講席을 마련 円訓和尚을 모셔다가 華嚴經을 說하도록 하였다.

⑦ 光啓 1年은 丁未가 아니라 乙巳이다

眞聖王元年이라 했으므로 光啓3年の 錯置일 것이다

大華嚴宗 仏國寺毘盧遮那仏 (眞興王이 鑄造케 한 仏) 文殊普賢像 讚 및
序 (崔致遠지음)

내가 이와 같이 들었도다 큰 香水의 바다와 같은 世界의 12
刹 부처님의 号는 遍光照니 모든 부처님중 그 威力이 가장 높으
신 분이로다。

仏國寺光學殿의 講堂左壁의 画像은 太傳 獻康大王께 드린 것으
로 誦媛 權氏 法号는 芳円이 尊靈의 玄福을 빌기 위해 奉獻한
바다。

생각컨대 王은 神仙中の 사람이며 媛은 菩薩의 化身이니 万劫에
절쳐 닦아 千年에야 서로 만나는 임금이니라 銀闕로부터 내려와
金城을 다스리니 놀라운게도 壽域땅에 오시니라 갑자기 돌아갈 시
기가 促迫되자 임금은 가고 媛妃만 남도다。

三無私의 德을 念하고 四不厭의 飯을 간직하고 이미 돌아간
大王을 우러러 보며, 이제 참으로 쫓아갈 太陽이 없으며 그 자랑
스런 머리칼을 자르고 거침없는 마음을 더욱 맑게 하다. 무궁화
같은 얼굴모습은 천연 그대로이며 忘憂草는 뒤에다 심는 것을 잊
고 있다. 사람의 목숨이란 갑자기 살아지는 아침이슬과 같은 것
이 마음가는 곳에 집착은 없으렸다。

이에 위대한 성자의 모습을 찾아 아름다운 손으로 그 거룩한
부처님 모습을 그리니 벌써 왼쪽 끝을 그렸을 때 오른쪽이 장
엄해 지고 가람의 동쪽에 광명이 비취일때, 서쪽 가람이 동시에
빛난다。

옛날에는 두 잎의 꽃이 그 아름다움을 바쳐 좋은 일을 성취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천 잎사귀가 간절히 그 깊은 소
원을 말하는 구나 願컨대 임금이시어 속히 그 德으로 西極에



가사이나,

이렇게 願하고 나서 달빛 속에 그 달을 面하니 마치 그 달의 몸이
구름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듯 하더니, 영영 가는 구름을 붙잡아
오고 말았다.

桂苑行人이며, 桑丘使者인 致遠이 命을 받아 말을 끌라 이에 願
하노라

仙 讚

무릇 눈앞에 있는 相은

모두다 虛妄한 것이니

이 虛妄함 가운데에

功德이 無量하도다

한 蓮花尼가

蓮華藏을 우러러 보며

有를 빌어 契機삼아

無碍의 모습을 그리니

보배로운 구름이 건혀 달이 보이며

香氣로운 바다에 물결이 자네

神仙같은 돛대를 달고

고요히 慈悲로운 배를 떠우는도다.

太傳先王과

眞和尙이

잠시 辰下의 땅을 化하니

일 찌기 崑崙넘어까지 소식이 들렸으며

蓬萊山밖으로 이름이 난

席化台上에서

원컨대 回向하여

万劫에 供養하리라

二菩薩讚

한 사람의 生菩薩이
두분의 眞菩薩을 體証하니
画像이 彫塑를 능가 하도다
聖者를 그리워 하기 목마르듯 하며
담념어 우러러 보기를 다투니
壁을 向해 觀하면 능히 解脫 하리라
누가 모양으로 본다고 말하느뇨
즐기로운 지혜의 마음은 빼앗을 수 없으니
輪廻의 길이 어찌 멀기를 顧하라
智慧의 노를 저을때 바다는 고요하네
뽕나무발 옛터밖이라면
반드시 蓮華臺의 末席에 있으니
功이 이루어져 위대하지 않느냐
이 일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게 하니
붓 끝에 衆目이 즐거워 하도다
丹青의 빛 같이 한결 더 수승하네
光啓丁未正月 8 日
桂苑行人 崔致遠이 지음 (東祖碑文에 나오다)

大華嚴宗仏國寺阿彌陀仏像(眞興王이 鑄造한 仏)讚 并序

옛날에 姚塢上人은 마음이 권태롭기 그지 없을 때엔 그 하늘
같이 섬기는 스승의 말씀을 청하였고 匡峯大士는 우러러 생각하
며 스스로 禪度키 위하여 마음을 西方淨土로 向해 집중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모두 다 훌륭하게 法門에 들어 미리 돌

아갈 길을 준비하고 수도하는 의미에서였다. 준비가 있으면, 患難이 없으며 흥성한 무리들이 이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에 스님이 가람을 계승해 말아 獋山에 머무르면서 願하기를 일찌기 廬山の 언덕에서 神表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널리 사람들을 引導하기를 꾀했드시 이 歸舍 西塲에 無量壽佛의 像을 改寫하니 그 그림이 이미 다 되어 이에 腐儒에게 紀를 써주기를 부탁한다。

이에 마음의 향기로운 빛을 밝히고 두 손바닥을 모아 우러러 읊하노니 仙陀의 德은 본래 經에 밝혀 있는 바 支遁林의 游場의 말귀속에 잘 들어나 있고 또 僧侶의 願은 劉澄民의 洞歸의 달썹속에서 잘 드러나 있어 책을 열면 모두 환히 알 수 있는 바이다。

생각컨대 黑頭虫(머리가 흰 벌레 俗人이란 뜻)이요 또한 雜色鳥도 아니면서 억지로 祇園歸舍의 說法內容과 그 부처님의 자비의 威力을 演說하게 되니 지금 부끄러움을 察할 길이 없으며 마치 가을 매미와 같이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다。

檀越 金承祖(大城)은 東岳의 기슭에 일찌기 寺刹을 지었는데 이는 해가 지려 할때 高山이 먼저 알고 그 잠자리를 찾는 것과 같았던 것이니라

蘇修는 날로 더하고 汲引은 날로 깊어 東林에서 과연 驥馬를 얻은 것이며, 西土에서 龍을 더위잡을 것이니, 福地를 그리며, 이에 頌을 짓는다。

東海라 東山에 한 절이 있으니

華嚴佛國이라 이름하였네

主人宗衮이 친히 세우니
 표제의 네 말에 깊은 뜻 숨었네
 華嚴에 눈을 대고 蓮藏을 보며
 仙國에 마음 돌려 安養을 찾네
 魔山에서는 毒蟲을 평평케 하려하니
 마침내 苦海에서 驚浪을 없게 하도다
 귀중한 스님의 한 말씀 法施를
 단월이 마음바쳐 따르기를 기약하네
 東에서 西를 바라며 그 形儀를 그리자니
 西山에 지는 해가 그 몸을 보도다
 각기 제나라에서 福利를 일으키니
 동쪽의 아축여래가 또한 기이 하옵네
 金言이 반드시 方位분별을 안했지만
 필경에는 마음의 머물곳이 있네
 妄 号를 妄生함은 空이 空을 對함이니
 이 뜬 세상의 修行은 끝을 삼가는데 있으니
 편안히 모셔놓고 真容을 우러러볼제
 누가 그 壁을 보고 感通치 않으리
 支公과 遠公을 경앙하오니
 모두다 仙國에 계시다 가셨네
 (同年月日 紫金魚袋 崔致遠지음 東祖碑文)

王妃金氏 (金大城三世의 孫女다) 가 先考를 위해 釈迦來像을 수
 놓은 幡을 만든 데 대한 跋과 序

듣자니 法嗣가 공중을 날아서 멀리 이 迷妄의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갔고 慈軒이 말씀올 타고 높이 이 불붙는 집을 하직하였

다 한다. 말로 探究하면 妙門을 볼 수 없으나 몸을 이끌고 가면 실질로 冥域에 들어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살아서는 높은 명망을 세웠고 죽어서는 좋은 인연에 몸을 맡기었으니 勳하면 이루어지고 往하면 不利함이 없지 않겠는가?

全州大都督 金公(蘇判公 顯憲인데 大城의 아들이다)은 少昊의 玄嚳요 大常의 令孫으로서 장막을 걷고 大衆을 잘 보살피 일찌기 銅虎符를 분담하였고 자리를 비켜 賢者를 求함이 간절하니 머지않아 金貂를 쓸터인데 어찌 큰 내를 건너지 못하고 먼저 좋은 재목이 꺾여지리라 생각이나 하였으리요?

부인은 德이 闕意처럼 두텁고 礼가 蘋蘩처럼 조출한 데 갑자기 所天을 잃게 되니 죽은 목숨같이 쓸쓸한 마음을 안고 卽概를 맹세하며 머리털을 잘라 용모를 바꾸고 재물을 회사하여 명복을 빌게 하고자 曆信宗 中和六年丙午(886) 5月10日 석가모니 仏像의 幡 1頃을 수 놓아 蘇判을 위해 바치고 莊嚴하게 告하기를 끝냈다.

이에 곧 仏・法・僧 三寶에 歸依하는 두터운 뜻은 五色의 彩色도 아름다운 한 画幅을 이루게 한 것이요 그 잘라 마른 나머지 천에 물을 들여 바느질을 하니 마치 아지랑이가 끼듯 그리고 슬기어린 구름이 나부끼듯 虛空에 높이 걸려 그 빛나는 功德을 더욱 화창히 드러내 도다. 우러러 天上에 태어나는 福樂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며 慈悲의 비를 뿌려주시라는 뜻에서 이에 讚하옵니다.

巍然하도다 聖相이여

巍巍하도다 神功이여

福은 眞路를 적시고

빛은 梵宮에 떠있고
 바다위 太陽 밑에 무지개가 나르고
 鳳凰이 바람이 는 하늘아래 나르네
 캄캄한 신비로운 밤
 飄飄한 푸르른 하늘
 실버들에 원한이 맺혀
 수놓아 일을 만드니
 兜率天上에
 精誠이 感通할지어다

中和六年丙午相月日
 梁丘使者 崔致遠지음

新羅朝의 上宰와 國戚・大臣等이 獻康大王을 위해 華嚴經社를
 結하는 願文

무릇 經을 가지고 社를 맺는 까닭은 사람들을 모아 誓緣으로
 부처님께 報答하도록 至誠으로 노력하려고 모이는 것이다.

唐曆壬寅(882年) 相月5日 憲康大王이 돌아가시자 重德・宗室
 및 가까운 親戚들은 서로 그 冥福을 빌기 위해서 華嚴經若干部
 를 만들어 京城의 동쪽 仏國寺에 와 齋를 올렸다. 円測和尚이
 강단에서 이제 妙願을 開陳하려 할 때 이 글을 짓는다.

무릇 生하고 滅함에는 一定한 時期가 있다. 聖賢에게는 다
 그것이 알려져 있다. 君子는 그 끝을 알며 哲人은 그 시들어
 감을 歎한다. 가는 물을 쫓아 돌아 간다고 하지만 100개의
 몸을 가졌더라도 갚기가 어렵고 源泉을 밝히지 못하고 또한 깨
 달는 일이 없으며 千載가 걸려도 슬픔만 늘꾸어 迷妄의 俗塵을

초월하지 못하여 모두가 感傷의 경지에 쭈구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玄牝(道家)에게서 養神할 기회를 잃었다면 梵雄(仏陀)에게 歸命함보다 急한 일은 없다. 능히 90 剎那에 마음을 가다듬고 響을 向하면 반드시 三千世界에 智慧와 慈悲를 골고루 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손수 부처님의 金言이나 口伝되어 온 寶偈를 베껴쓴다면 福이 그 深奧한 길을 덮을 것이며 눈깜박이는 사이에 뜻이 그 부처님앞에 도달하며 영원히 四流의 表面에 있어 위로는 妙果를 얻는데 進一步하고 같이 大覺의 숲에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엎드려 생각컨대 先王은 殫己의 為人으로 임금으로써 그 백성 보기를 아들 보듯 하시었다. 百政이 모두다 온전한 하늘의 配屬과 같았다。

그의 文章은 四方을 비월 정도로 빛났고 그의 辭令은 또 매우 엄하였다。

魯나라 聖人의 가르침에 대하여 큰 길을 열어 주어 儒風을 널리 振作시키었고 荒廢하던 淑門에 새 바람을 넣어 다시금 弘日이 빛나게 하고 마침내 九野에서 煩惱와 罪惡을 一掃하고 四溟(바다)의 물결을 멈추게 하며 영원히 干戈를 놓게 하여 萬百姓을 다시 살게 하니 어찌 헛되히 弓劍을 놓게 했으리요 갑자기 여덟 가지의 音聲이 자자하도다。

聖上(定康大王)이 그 寶位를 계승하시매 아직 先王을 그리워 하심을 막을 길이 없으며 哀情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恩惠를 갚기 위해서는 道緣을 맺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며 福을 빌기 위해서는 法會를 일으키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리하여 마침내 別大德인 賢俊에게 지시하여 華嚴經을 강하게 했더니 賢俊이 講을 마치고 法座에서 내려와 聖上에게 다음과 같

이 말씀드리었다. 「大和年間に 보옵건대 均諒이라는 스님 등이 宣懿王后를 위해 승려와 俗人을 함께 불러 春秋로 모이는 結社를 맺었나이다. 各者가 經卷을 가지고 仁祠에 같이 모여 서로 玄福이 무궁하기를 권하고 빌며 부처님의 妙音이 끊임없이 伝해지기를 바랬나이다. 名言이 깊은 信願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언덕이 골짜기로 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구히 蘭꽃이 아름답고 桂花가 香氣로우라고 빌었나이다. 지금 이 均諒의 故事에 따라 群臣에게 寫經하는 일을 勸誘하고 이 미친한 몸에서 번뇌를 다 제거하기를 바라도록하면 法은 無礙한지라 뜻이 있으니 반드시 成就될 것이 나이다. 위로는 聖上의 慈悲를 우리러 보겠아오니 밑으로는 이 迷妄한 者들의 請을 들으소서……………」

聖上께서 이 좇하는 바를 들어 허락하시어 곧 侍書中에서 가장 글씨 잘 쓰는 이를 택하여 華嚴經世間淨眼品第一을 筆寫하도록 命하시고 會畧을 召集하시다. 그 會畧날에 이르러 王의 使臣이 經을 奉持하고 자리에 앉으니 그 楚나라 王 英이 깨끗한 뜻으로 맹세를 한 것은 마치 小乘에 滯한 것과 같고 肅帝가 또 이를 흉내낸 것은 尊貴한 이를 내리껴 卑賤하게 하여 大宝를 손히 가버히 여김과 같았다. 어찌 雜花經의 妙偈를 장난함 같이 하리요. 훌륭한 結實의 原因이자 友情의 至義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도다. 王者의 尊威는 스스로 올라가고 드디어 衆情이 바람에 나부끼듯 따라왔다. 願컨대 구름이 일어 萬木이 春陽을 만남같이 되고 百川의 大城에 돌아감같이 될지어다.

이에 上宰 舒發輝 金公 林雨과 國威 重臣 蘇判과 順憲과 金一 등이 或은 金과 아름다운 彩色으로 또 或은 貴한 盤石으로 높이 標하여 廊廟의 탁월함을 표했고 깊이 棟樑의 그릇임을 표했으며

茂盛한 丘陵을 보고 눈섭을 떨리며 梵域을 가르켜 마음을 기울이며 영원히 天姓의 慈悲하심을 기리었다. 함께 追慕하며 義熙本經을 寫하였다。

또 國祚과 僧錄 등은 貞元新經을 寫하였는데 北宮의 長公主가 이 이야기를 듣고 淨財를 喜捨하여 標帶를 만들었다. 아름답도다 天倫의 疑의 두터움이며 누이의 恩功이 또 깊도다. 이와 같이 會衆이 모두 한결같이 원하여 1년에 두번씩 仏國寺 光學殿에 모여 百篇真詮을 轉讀하였다.

中和二年桂苑行人崔致遠지음

(東國僧史輯에 나옴)

王妃金氏가 先考 및 亡兄을 위해 追福을 빌고 施設하면서 드리는 願文

(省 略)

宋의 仁宗天聖2年甲子(1024年) 高麗顯宗15년에 重營

顯宗은 前王 穆宗이 佛法을 믿고 供養해 온 사실을 追慕하여 大角干 金世祿 등을 보내 三重大德 万福 神府 등을 불러 仏國淨界를 結壇하고 齋를 베풀게 하였다. 30인의 僧이 度牒을 받았으며 田20結을 獻納하였다. (東祖集에 나온다)

清泰3年丙申(936年)에 三州을 統合하였고 6年己亥에 처음으로 高麗國號를 쓰기 시작하다. (慶州의 新羅滅亡後의 邑號는 徐羅이다. 天福5년에 安東郡設府를 慶州司都督府로 고치다. 顯德元年甲寅에는 皇龍寺九層塔과 左右金堂・丈六仏이 火災로 燒火되다. 統和12年甲午에 安東郡設府를 東京留守官으로 고치다. 22年甲辰에 皇龍寺九層塔과 丈六仏이 되다. 26年 慶州를 樂浪郡으로 고치다.

壽昌元年乙亥에 皇龍寺에 벼락이 떨어져 燒失되다。 戊戌 10月 11日에 皇龍寺殘余가 蒙古人들에 의해 燒却되다。

南宋 孝宗 乾道 8年壬辰(1172) 高麗 明宗 2年에 毘盧殿과 極樂殿이 重創되다。

大師 觀玉과 秀蘭등 고려조의 禪林中 뛰어난 분을 明宗은 가장 德行이 높은 두분의 스님이라고 존경하여 王師로 封하려고 中樞知奈事 兵部侍郎 王寵之를 보냈다。

이어 東京으로 上幸하사 華嚴社仏国寺에 이르러 光學藏講室의 동쪽 벽에 獻康大王의 肖像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시고 엄숙하고 공손하게 경례하신 다음 그 두 스님으로 하여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毘盧殿과 極樂殿의 기와를 갈아 입히도록 命하셨다。(鄉伝에 나옴)

元의 仁宗 皇慶元年壬子(1312) 高麗 忠宣王 4年에 道場을 重修하다。

高麗의 瑜伽教師 円公의 諱는 海円이요 俗姓은 趙氏이며 咸平人으로서 태어날때부터 端莊하고 天品이 慈悲롭고 슬기로우며 그 拳動이 매우 特出했다。 12歲에 仏国寺에 들어가 浮雪和尚 밑에서 削髮을 하고 그에게서 佛法을 배우기 시작했다。 同輩들이 敢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甲午年 봄에 選仏科 大德자리에 올랐다。

乙巳년에는 安西王이 高麗의 僧侶들의 戒行이 매우 높다는 소리를 듣고 使臣을 보내 円公을 초청해 왔다。 円公이 그 命에 応하여 安西王國의 宮中에 들어가 이래 安西王으로부터 朔北의

風俗을 배웠다. 거기에는 耕種을 일삼지 않고 牧畜으로써
 生計를 維持하며 고기를 生食하며 그 피를 마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속에서 2年을 보내며 추위와 더위를
 참으며, 굶주림을 참으면서도 羣草를 입에 대지 않고 더욱 굳건히
 戒를 지켰다. 王은 더욱 公을 重視하였다. 本國의 王도 더욱
 公을 尊敬하여 礼를 두터히 하고 다시 請하여 東都城의 동쪽에
 있는 仏國寺에 머무르게 하고, 繼鑑 円明 遍照 無碍 國一大師란 号를
 내리고 우대하였다. (狀苑 詞林 碑에 나옴) (李綾이 지은바다)

皇慶元年壬子(1312) 麗州尙書를 麗州府尹으로 고치다。

洪武 20 年丁卯(1387) 中國制度에 따라 朝廷의 服色을 바꾸다。
 (25 年壬申 7 月16日에 太祖 康獻大王이 松京 壽昌宮에서 即位하였
 다)

27 年甲戌(1394) 에 高麗國號를 朝鮮으로 고치다。

明의 英宗 正統元年丙辰(1436) 朝鮮世宗王 18 年에 重創

重還大德인 義弘이 大雄殿과 觀音殿 紫霞門을 重修하다。

大功德主는 다음과 같다。

孝寧大君・安平大君・永平大君

奉礼郎 崔自朗

鎮海景監 崔自淵

개와化主 信俊 別座海常

正統 13 年戊辰 3 月 18 日에 世宗大王이 「 仏國寺 仏法僧三寶印信 」 을
 特賜하시다。

景泰 6 年乙亥(1455) 中德大禪師 惠能通泰 두 스님이 釈迦主尊과

左右補處와 壁畵를 改金하고 丹艧을 하다。 副化士는 戒淨 惠空 行根 六然 義悟며 大功德主는 顯德大妃와 魯山君이다。

明의 弘治 3年庚戌(1490) 朝鮮 成宗王 21년에 重創

重大師 義玄이 大雄殿과 各殿을 重修하다。 大功德主는 다음과 같다。

月山大君

慶州府尹 防禦節制使 尹埈

判官 張日新 개와化士 了望

弘治 8年乙卯 2月 15日

燕山王이 尙宮權氏와 平內史 徐逸行等에게 分부하여 東京 仏圓寺 觀音菩薩의 塗金을 命하였다。 絹 30匹 香楮 1千束을 태워 落成하다。(이듬해 正德丙寅年에 荒亂하기 이틀데 없으므로 朴元宗 柳順珎・成希顔等이 慈順王大妃에게 啓하여 이를 廢하게 하고 甲宗大王이 卽位하다。)

明의 世宗 嘉靖 43年甲子(1564) 朝鮮明宗王 19년에 重創

大德 達文이 大雄殿을 重修하다。 大功德主는 다음과 같다。

仁明大王大妃

恭懿大妃

尙宮 金氏 侍女 雪華

慶州府尹 嘉義大夫 李仲樑, 判官 李淑仁 蘇克禎 개와化士 智彥 宇倫

成化 6年庚寅(1470) 大德 了明이 觀音殿을 重修하다。

正德9年甲戌(1514) 大德 月淸이 極樂殿의 壁畵를 重修하다。
檀信士는 禹泰鳳과 金光充이다。(이 상은 大雄殿上樑文記에 나오다)

天竺으로부터 中國本土에 스며 마침내 東쪽으로 흘러 震朝를 통
틀어 西學은 퍼져왔다. 律은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같이
등등한 기세를 보이고 鷲는 龍이 구름을 일으키는 것같이 새롭게
번지지 않는 곳이 없다. 건물로 말하면 작은 것 큰 것 합하여
3千余間이나 되었고 스님은 늙은이, 젊은이 합하여 萬名을 넘었다.
하루에 두 번 스님의 예불이 있을때엔 구름도 무색할 정도로 香
供養이 이루어지고 夜3分에 聖号를 외우는 소리는 천둥같아, 普光
堂을 진동케 한다. 마치 구슬로 엮은 그물같이 主와 客이 交參
하고 마치 유리병의 크고 작은 것이 다 동시에 빛을 발하는 것
같다. 德을 쫓아가는 사람의 밝은 거울이요 마음을 엄하게 하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밧줄구실을 한다. 人情에는 利로움, 利롭지 아
니 함이 있고 生品에는 제도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의 구별이 있다.
아 누가 그 옛날 全盛時에 있었더냐? 건물은 아름답고 웅대하며
길게 늘어선 그 모양이 이를테 없이 妙하지 않느냐 玉돌입 사귀는
香을 감추고 있고 欄干의 구름이 구슬을 먹음고 있네. 소나무가
白雪을 날리고 달이 비취는 골짜기에 별다리가 놓였네 太陽을 잉
태한 碧雲이 오고 가고 하면서 또는 웃고 또는 이야기 하며 이
를 맞이 했다 보냈다 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 그림이 오고 가는데 본 것을 모두
다 적지 못함을 애석히 여기 노라

大明万曆21年 우리나라의 宣祖大王 26年癸己 5月 日 倭寇가 陸

地에 百姓들과 物件을 노략질 할제 左兵使는 精銳한 弓劔을 비밀리에 本寺의 地藏殿의 벽사이에 옮겨다 감추었다。 倭奴 數十名이 절에 와 仏像과 기타 제반시설과 棟梁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다투어 감상을 하다가 兵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사실 꽃속에는 毒虫이 있는 法이나라」하며 여덟사람을 뺏아 죽이고 百개의 방을 불살라버렸다。 帝王의 宮城이 아닌데 별안간 침략자의 災難을 당하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냐.

千萬 多幸으로 이때에 選科 藝華大師가 亂을 피해 長壽寺에 있었는데 門徒를 이끌고 달려왔다。 불길에 쌓인 大雄殿・極樂殿・紫霞門外 2千余間이 모두다 불타버렸다。 그 밖에 金像과 玉으로 만든 물건과 石橋와 宝塔만이 그 사나운 불길의 禍를 모면했다。

宮中에서 내린 綸旨와 千樣万色の 보석 宝物이 그 火魔의 입에 들어가 버렸으니 개탄할 일이다。

天運은 循環하고 安泰가 無常하니 前賢과 後哲이 계승하여 仁祠를 恢復하고 殿像을 다시 세우는 것은 60年을 지난 後의 일이다。

清 順治 16年己亥(1659) 朝鮮 孝宗 10年の 重創이다。

判事 天心이 寶殿을 重修하고 丹殿을 하였다。

大功德主는 慶州府尹 嚴鼎耆, 判官 申成一 引勸化士는 克思・法鑑이요 副化主는 定玄・幸淳・靈眼・學能・淸日・雪元이요 개와化主는 普濟・性俊이며 別座는 義俊이다。(上樑文에 나오다)

17年庚子 德祐(또는 天心)이 昆廬殿을 重建하다。 그리고 丹

靑을 하다。 化主는 道天과 印祐(性閑)이다。

同年 8 月 ; 一潮가 自辦으로 大雄殿을 雕造하였다。(戶闔四面莊
千)

또 法鼓를 만들다。

順治 5 年戊子 大德 海淨이 說法殿을 重建하고 또 玄真堂을
새로 세우다。

10 年癸己 雪梅가 極樂殿뒤의 仏幀을 造成하다。施主는 比丘
智孟이다。

万曆 32 年甲辰 大德 海清이 觀音殿 長壽寺를 重創하다。

40 年 大師 海眼이 梵鍾閣과 左經樓・右經樓・兩行廊을 重建하
다。

天啓 6 年丙寅 山人 清彦이 安養門을 重建하고 또 滿月堂을
새로 지었다。

8 年戊辰 大德 聖體가 東西行廊과 文殊殿・香炉殿을 重建하였
다。

崇禎元年庚午 首座 泰湖가 紫霞門을 重修하고 兩壽廳을 重建
하다。

5 年甲戌 優婆塞 優婆尼(海明과 海月) 觀客像에 塗金하다。

順治 4 年丁亥 一悟가 16 羅漢殿을 세우고 等像을 만들다。

10 年癸己 雪梅가 上龕과 三殿位牌와 三壇位牌를 만들다。

清 康熙 13 年甲寅(1674) 首座 察信이 文殊殿을 重修하고 文

殊・普賢兩尊像을 만들고 觀音像을 改金하다。

同年甲寅 自涸이 十王殿을 創建하다。 等像의 化主는 察信이다。

順治 12 年乙未 化主性俊이 伯陽을 創하다。 康熙 丙寅年에 自涸이 重葺하다。

康熙 15 年丙辰 中行廊을 重葺하다 化主는 太真^{원旭} 克心이다。

(克心은 또 左右翼廊도 새로 지었다)

16 年丁巳 東行廊을 重創하다。 化主는 大師 建釋副化主는 性悟이다。

17 年戊午 香炉殿을 重修하다。 化主는 察信이다。(同年 義俊은 東別室을 重葺하다)

10 年辛亥 化主 雪聰이 처음으로 祖師殿을 세웠다。

20 年辛酉 月松堂大師가 肅宗大王 仁顯王后 閔氏의 勅命을 받들어 毘盧後^원 祿一軸을 만들었다。 王后는 大端卓衣 一領 金酌 一 玉佩 二双 (7 環) 毛鞭 一隻・華鞋 一双 祇氏涼流 1 件, 諸仏菩薩歌曲經 1 件, 中壇三藏^원 一軸을 特賜하다。(尙宮尹氏 侍女 李氏 金氏妙玉)

21 年壬戌 大雄殿에 비가 새다。 개와化主……澄信, 祇宗, 草全, 冲益

27 年戊辰 須彌梵鍾樓를 重創하다。

29 年庚午 通政惠林이 法鼓를 만들다。

27 年戊辰 觀音像을 改金하다。 化主는 贊機

29年庚午 左經樓를 重建하다。 化主는 釈仁, 釈明, 性坦, 智屹,
広惠

25年丙寅 靑雲橋・白雲橋를 重修하다。 化主는 敬訥, 雪彦, 裕淨,
秋任이다。

41年壬午 비가 새고 기와가 저절로 깨지다。 化主……………贊照,
法印, 雲珠, 卓治, 斗湖, 卓清, 哲心, 惠宝, 法還

47年戊子 紫霞門과 梵鍾閣에 丹靨을 하다。 化主…… 祖英

同年戊子 無說殿을 修莊하다。 化主……卓行, 卓林, 双訓, 惠根, 日
雲(別座 善清)

44年乙酉 東行廊을 重修하다。 또 大雄殿의 西쪽 기둥을 갈다
寺内の 執事 雲珠

42年癸未 中龕과 下龕이 造成되다 化主는 居士淨明

同年癸未 掛仏造成, 化主는 天然居士, 双玉藏櫃를 造成하다。

34年乙亥 觀音殿을 重創하다。 化主는 明哲, 宗伯, 覺岑, 勝允, 贊
湖, 靈修, 斗仁, 勝賢이다。 기와化主는 守孟, 思達이다。

42年癸未 觀音殿 뒤의 仏壇을 만들다。 化主는 居士 天然

51年壬辰 十王殿의 丹青이 이루어지다。 化主는 壬子・癸丑・甲寅・
乙卯等生인 戒聰・懷忍・善清・道性・善嘗・善淑・宥草・
善存이다。

54年乙未 大禪師 匡坦이 毘盧・彌陀・觀音三尊像을 改金하다。
(別座는 懷忍)

同年乙未 首座 卓敬과 水月等이 彌勒・竭羅 兩補處尊像을 改金
하다。

55年丙申 居士 法選이 十王殿 뒤의 仏幀을 造成하다。

(別座는 再遠)

54年乙未 右經樓를 重葺하다 化主는 斗天과 匡侶이다。

53年甲午 비가 새다 기와化主………玆玉・致性・呂行・宝邱・就学
致鑑, (淨洽)

57年戊戌 觀音殿을 丹靨하다。化主는 善淸과 順攄

59年辰子 極樂殿을 丹靨하다。化主는 善淸과 再遠

57年戊戌 右經樓를 丹靨하다 自願化主 守寬

51年壬辰 무게 115斤의 銅鉄大煎海를 鑄成하다 典座는 惠峯

57年戊戌 무게 505斤의 水鉄甌을 鑄成하다 典座는 双玉

54年乙未 育雲橋와 白雲橋를 重修하다 化主는 戒聽・克邈

22年癸亥 瑞雲堂을 重創하다 化主는 思孟, 尙彦(康熙 辛丑에
重修, 化主는 克邈)

55年丙申 省行堂을 移建하다。(寺內)

48年己丑 玄真堂과 滿月堂을 重葺

57年戊戌 明月寮를 重葺

55年 蔡口를 鑄成 化主는 就寬, 善益

57年戊戌 通政 懷忍이 經函, 䟽台, 燭台, 燈籠을 스스로 備置케
하다。

清 雍正元年癸卯(1723) 蔡口雲版 104斤짜리를 鑄成하다。

化主는 大師 粹治

6年戊申 무게 813斤짜리 大鍾을 鑄成, 化主는 大師 粹治 (施主
兼 別座는 通政清益)

3年乙己 祖師殿을 重創

5年丁未 各邑의 威儀가 虛해졌으므로 亭子를 寺內에 造成하다。
助緣은 懷忍이다。

7年己酉 十王殿・香炉殿・南樓를 重創 化主는 真聽 (別座는 神閑)

8年庚戌 大雄殿에 비가 새다. 기와化主는 大海, 克杞, 宥性, 時贊,
慈海, 妙彦, (別座는 克運이다)

年己酉 大雄殿과 諸殿의 개와를 입히다. 化主는 堯文・得福・
翼玄・義根이다。

清 雍正 8年庚戌 (1730) 通政 紘懷忍이 그 父 通政 禹仁榮과
그 母 鄭氏를 위해 自財 800余金을 내어 大雄殿을 丹靨하고 中
壇의 三藏의 幀을 만들다. 그리고 左右翼廊을 丹青하다. 副化主
는 體英, 別座는 怨天이다。

同年庚戌 大雄殿의 左右補處인 彌勒・竭羅・兩尊像을 塗金하다。
大化主는 珣峰大師 寶天 熙藏 六根이며 別座는 清益
이다。

九年辛亥 瞻星閣을 法堂東隅에 새로 세우다. (施主는 韓世元,
典座는 幸札)

同年 大雄殿의 기와補修, 化主는 幸札, 施主는 千萬壽이다。

清 乾隆元年丙辰(1736) 東行廊을 重葺하다。化主는 義瓊

2年丁己 安養門을 重葺하다。化主는 居士 淨行과 清信이다。

5年庚申 昆盧殿위의 仏幀을 造成, 化主는 居士 月華인데 또
陽傘 한雙을 만들다。

⑧ 乾隆 25年庚辰 羅漢殿을 本래의 基礎에로 移建하다。化主는 祝
達天(猶堂의 大施主니 通政 鄭慶碩이다)

癸未 3月 以下 文意不明

明 熹宗 天啓3年 癸亥(1623) 朝鮮仁祖元年 黃龍寺를 重建하다。

選科大德 龔華가 朝廷의 命을 받들어 日本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隱窟山本寺에 隱居하였다。 그는 이 절이 倭賊의 불살은 바되어
잣더미로 化한 것을 개탄하고 重葺한 것이다。 古伝에 新羅善德
女王이 唐貞觀 7年癸巳에 藥師像을 鑄造케 하여 安置하게 하고 이
절의 이름을 黃菴寺라고 하였다。 後에 昭聖王때 5年이나 旱魃
이 심해 草木이 말랐는데 홀로 이山만은 陽春과 같이 시냇물이
흐르고 濕潤을 더하여 草木이 젖어 있었다 한다。 그리하여 이
절을 隱窟寺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黃龍寺라고도 하게 되었다。

清 順治 7年庚寅(1650) 에 首座一真이 重修하다(康熙辛巳年
僧殘寺를 廢合하여 仏國寺에 屬하게 하고 深寂庵이라고 고쳐 불
렀다。)

⑨ 寫本의 이 部分이 包含된 一面(才 20張 裏面)은 세가지 다른 筆跡으로
쓰여 있으며 体裁도 內容도 다른 記述과 一致하지 않는다
後代의 插入이 아닌가 한다

康熙 41 年壬午 深寐를 重創하다。化主는 崇屹과 思欠

54 年乙未 偶然히 失火 하여 다시 重創하다。化主는 国淨

47 年戊子 深寐法堂을 重創하다 化主는 贊英

雍正 8 年庚戌 深寐庵을 重建하다 化主는 法常

明 万曆 42 年(1614) 中德大禪 曇華가 長寿 庵을 重建하다。

康熙 22 年癸亥 元湜, 釈照 두 스님이 長寿庵을 重建하다。

順治 9 年壬辰 智孟이 兩寿庵을 重建하다。(康熙 6 年丁未에 海明이
重創하다。雍正 7 年己酉에 就淡이 重創하다)

順治 17 年庚子 高雲이 靑蓮庵을 創建하다。(雍正 3 年乙巳에 重創
하다。化主는 淨軒 雷閑)

康熙 59 年庚子 通政懷忍이 財産을 내어 祖室을 짓다。(扁日 指
月)

康熙 23 年甲子 靈智가 白雲庵을 創하다(1 名 白蓮庵 51 年壬辰에
重創 化主는 広明)

康熙 42 年癸未 水月이 浮屠殿을 創하다。(滄波堂文學大師의 浮屠
1 座와 朗廬堂建粹大師의 浮屠 1 座)

57 年戊戌 大師 道儀가 浮屠社를 重創하고 또 丹青하다。

康熙 33 年甲戌 戒天이 天鋸庵을 創하다。(東岳 東쪽기슭에 있다)

32 年癸酉 大師 法眼이 雲菴庵을 重創하다。(東岳의 東쪽기슭에
있다)

41 年壬午 呂淨이 光目堂을 創하다(55 年丙申에 重創, 化主는 水

月, 乾隆 6 年辛酉에 重建, 化主는 先益, 尹甫殷・李太秀)

27 年戊辰 義俊이 華嚴殿을 重建하다. (59 年庚子에 重葺)

42 年癸未 從悅이 石砌廳을 重葺하고 또 窟階를 쌓다. (57 年
戊戌에 重葺 化主는 太諫)

順治 10 年癸巳 大德智元이 普德窟・中窟・上窟・林坊等 四廳을 세
우다. (모두 瑞述嶺墨丁山 西쪽 기슭에 있다)

康熙 34 年乙亥 性修가 林坊廳을 下方으로 옮겨 세우고 靑蓮廳이
라고 이름을 고쳤다.

乾隆 5 年庚申 다시 南寐廳이라고 이름을 고치다.

康熙 47 年戊子 새로 信道廳을 세우다. (言乙万에 있다) 戊戌年
에 다시 옮겨 세우다. (지금의 開谷里)

58 年乙亥 元湜이 새로 雲水廳을 세우다 (暗谷東北골짜기 에 있다)
雍正 7 年己酉에 上万으로 옮겨 日照廳 經走廳 (見仙山
에 있다) 北廳 (北軍里에 있다) 白月廳 (雨潤水 兩
쪽골짜기)

康熙 41 年壬午 紙大同을 設立하다. 首倡者는 思邈이다.

47 年戊子 古蹟板을 開刊하다. 斗華懷忍이 맡아 하다.

⑨ 乾隆 庚申 正月 金鼓를 建立하다. (300 余金を 드린다. 首倡은
義根)

庚申 5 月端陽大廳門人活庵東隱書于靑社

⑨ 以下 3 行中 마지막 7 行은 後代의 挿入이 아닌것 같다.

雍正 7 年乙酉 道僧太仁이 湖南으로부터 와서 이 절에 머무르다。
 절의 규모가 西陵의 仏國을 모방하기는 하였으나 梁淨이 混沌하고
 聖凡이 失序하여 眞淨한 道場을 汚穢한 것을 개탄하였으므로 세
 곳의 衆寮를 縫袈裟로 옮겨 지었다。

累計千余財가 이 일에 所授되었다. 또 園牆을 쌓았다。

乾隆 15 年庚午 樂業段을重修하다. 化主는 悟遠 鄺鼎 武似, 良工
 은 三海 道演이며 都監은 武存, 別上은 慕遠이다。

乾隆 14 年己巳 大仁首座의 知誠으로 光目堂禪室을 重建하다. 化主
 는 李太益, 尹輔成等이며 良工은 李泰日, 道演이며
 都監은 嘉善, 香清이며 別上은 明厚이다。

33 年戊寅 寂光段이 重葺되다. 化主는 甲午, 甲寅, 首顯, 禪德, 都
 監은 胡儒誠 太明이요 別上은 仁伯, 良工은 日安이다。

24 年己卯 冥府段이 重葺되다. 化主는 崔南福, 金汝太, 韓泰昌, 李
 衆胆, 鄭光郁, 鄭德富, 良工은? 都監은 顧寄 別上은
 楊閑이다。

30 年乙酉 大雄段이 重葺되다. 天龍寺의 老德 采遠이 半千金을
 가지고 首倡하다. 都監은 戒鑑 別上은 和惠, 良工은
 湖南僧, 快演, 四信, 右堅, 大仁等 18 人과 嶺南僧 戒澄,
 始淑等 10 余人이다. 化主는 本寺의 大德인 一國都總
 攝 西岳堂 道泰며 副化主는 大德인 梵行, 平心, 如一
 玄悟, 遠惠, 泰觀, 恕弘等 20 余人이다。

乾隆 32 年丁亥 大雄段을 丹雘하다. (4 月에 始役하여 6 月에 畢
 役하다)

首化士는 大魚山普覺登階 贊弘이요

化士는 宗師 浩然, 宗師 万淵, 大師 華日, 魚山, 和印, 首座 敏是等 15人이다. 自納化士는 通政인 斗日, 性宅, 斗閑, 海淑, 通政인 大演, 唯埴, 印淑, 始演, 始敏等이다.

都面員은 夏閏, 副面는 致淨, 普觀, 守性, 教源, 若鷗等 53人이다. 都監은 前僧統 閔恬이며 別座는 通政大夫 雷響이다.

乾隆 34年己丑 5月 13日 大雄殿의 3尊과 觀音殿의 独尊을 改金重修하다. 또 迦葉과 阿難尊者의 新画像이 이루어졌으며 大雄殿안의 뒷면에 仏幀, 帝釈天, 龍會가 完成되다.

大化主는 凌雲堂 宇定大禪師이고 塗金과 良工은 湖南의 尙淨과 本寺의 有成等 33人이 맡았다.

改金大施主는 通政 采遠이요, 觀音像의 改金施主는 石峯堂 任活大師 혼자서 맡았다. 後仏幀의 大施主는 嘉善大夫 写真이 맡았다. 都監은 魚山大師 閔悅, 別上은 弘覺 登階 魚山大師 贊弘이다.

嘉慶元年丙辰 3月 日 楊寧, 引路幡, 觀音圖團, 羅漢卓衣, 毘盧, 極樂兩圖團을 主上三段下에서 여기에 奉安토록 내려주시었다. (來行한 首座는 玉和요, 그 때의 僧統은 性寄이다.)

2年戊午 10月 日 京畿道城內兩部倭館洞 請信士 顯正이 大雄殿의 卓衣一領과 羅漢과 主仏三尊의 포단 觀音殿의 玉燈 1座를 마련하다.

嘉慶 3年戊午 這물의 還立을 뒤집다. 嘉慶 10年乙丑 毘盧殿末路를重修하다.

首唱者는 綏菴堂 典印이요 化主는 偉寬이다。